

2022

01

Vol.605

조선시대
호랑이





The Museum News

창간일 1970년 7월 1일
발행일 2022년 1월 10일
발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www.museum.go.kr
기획·편집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제호 최순우
디자인 디자인소호
인쇄 우진코니티
ISSN 1226-038X
문의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02-2077-9573
thehinse@korea.kr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의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집

신년 인사말

04 힘차게 전진하는 박물관

새롭게 문을 여는 공간들

08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10 국립중앙박물관 백제실·가야실

12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

14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 전시관



전시·학술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16 불교미술 너머의 사람을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18 다채로운 빛 품은 고귀한 생채기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20 맵시 있게 두른 멋과 지혜

국립박물관 아카이브기행 49

22 〈한국국보전〉유럽 순회 전시 아카이브
두 번째 이야기

열린마당

명사 에세이

24 멈춘 시간 속 고요히 흐르는 사유

박물관을 읽어드립니다

26 한·중·일에 분산된 ‘679년도
당나라 국가 재정 집행 문서’가
하나로 복원되다

박물관 수첩

28 어른이 된 소년에게 전하는
박물관의 인사

시간이 머무는 곳

30 고귀한 아름다움, 빛나는 가치



박물관 소식

32 국립박물관 e뉴스

34 국립박물관 전시 일정

두더지의辯

35 용맹한 호랑이의 추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박물관

우리 사회는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박물관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에서 일상 회복을 향한 염원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가 한류를 넘어 세계인들이 다 함께 즐기고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은 결코 단기간에 주어진 우연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 원천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수천 년을 이어오며 계승, 발전시켜온 우리 역사와 문화의 오랜 전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박물관은 이와 같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보고寶庫로서, 시대와 호흡하고 생명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것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함께 느끼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개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은 그러한 고민과 노력의 작은 결실입니다. 삼국시대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만으로 오롯이 채운 이곳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새로운 차원의 전시실입니다. 사유思惟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류 보편의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두루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차분히 관조하고 그것을 반추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깨달음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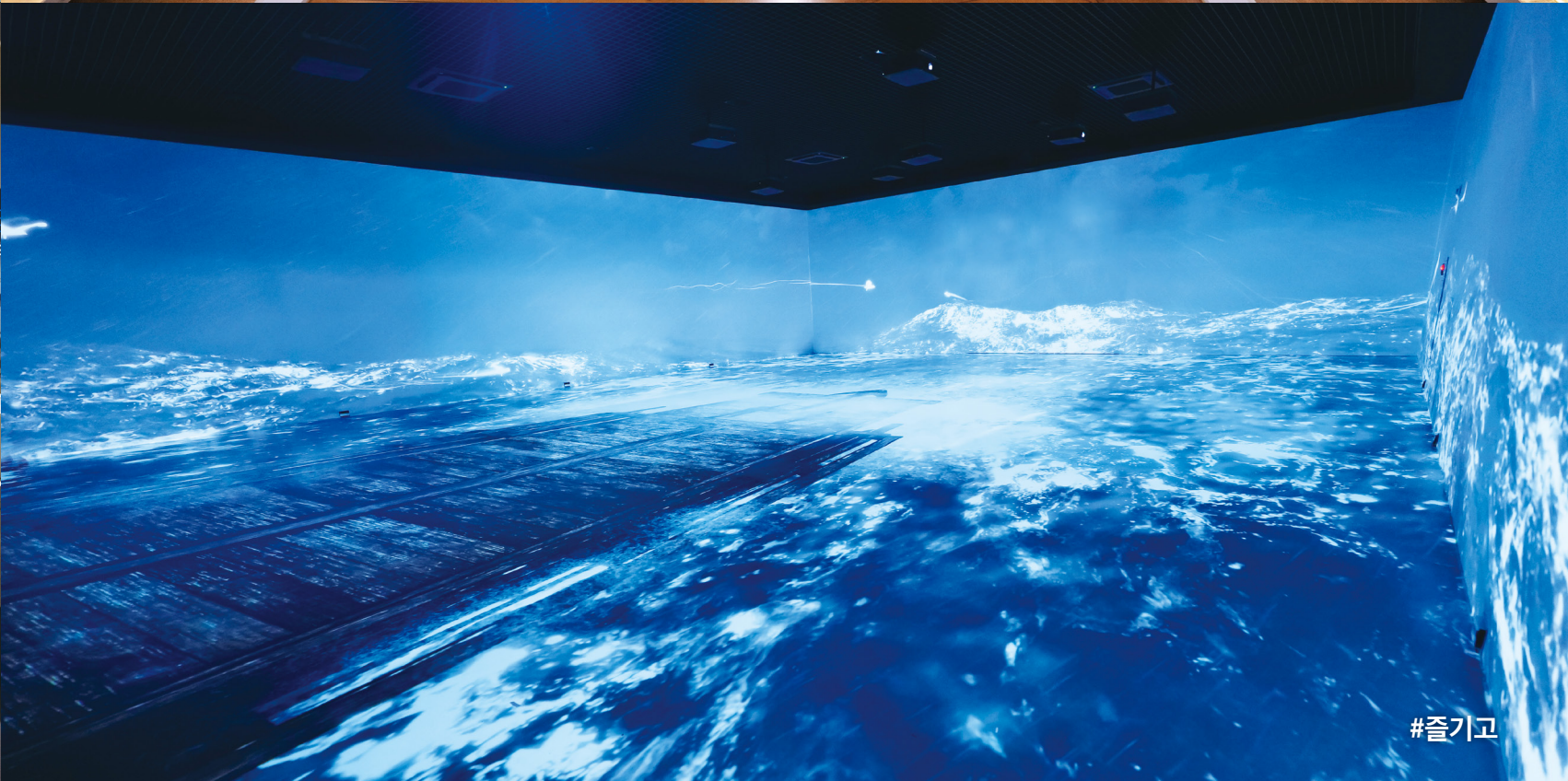
음력으로 작년은 소의 해였고, 올해는 임인년壬寅年 즉 호랑이해입니다. 소의 우직한 걸음과 호랑이의 날카로운 눈을 뜻하는 ‘우보호시牛步虎視’라는 말이 있듯, 진중함과 예리함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특히 호랑이는 용맹과 기백의 상징이지요. 최적의 때와 기회를 기다려 앞으로 과감히 나아가는 호랑이처럼, 2022년 새해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해 더 나은 박물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도 『박물관신문』을 펼쳐 보며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립중앙박물관장 민병찬



용맹한 호랑이
猛虎圖
조선 18세기
종이에 먹, 96.0x55.1cm
M번 6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새롭게 문을 여는 공간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잇는 박물관’으로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알리는 공간들이 있다. 세대를 아울러 함께 즐기고 경험하며 풍성한 문화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서울, 광주, 제주에 이르기까지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이한 국립박물관 ‘핫 플레이스’를 미리 만나본다.

놀이로 키우는 창의성과 상상력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아하! 발견과 공감> 개막
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제1부
‘새롭게 관찰해요’
관찰과 탐구의 과정 즐기기

제1부 ‘새롭게 관찰해요’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지식과 문화유산을 살펴본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기마 인물형 토기(국보)’를 형상화한 대형 구조물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기마인물형 토기는 2층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이 오르락내리락 즐길 수 있다. 2층 ‘멀리 보는 눈’에는 옛 사람들이 바라본 낮의 하늘과 밤의 하늘이 있다. 먼저 낮의 하늘은 조선시대 해시계인 양부일구(仰釜日晷)를 소재로, 어린이가 직접 해시계의 바늘의 되어 해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가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밤의 하늘은 조선을 대표하는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영상을 활용하여 옛 하늘 속에 들어가 별자리의 이름과 밝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기마인물형토기 전망대는 어린이박물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인기 명소로 기대를 모은다. 1층 ‘크게 보는 눈’은 문화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다. 기마인물형 토기의 여러 말장식과 사람의 표정, 초충도(草蟲圖)의 여러 곤충과 꽃을 살펴볼 수 있다. ‘속을 보는 눈’ 코너에서는 오늘날 문화재 분석에 사용하는 X선, CT 등 자외선 촬영 기술을 소재로, 어린이들이 촬영대에 문화재를 놓고 문화재 속 구조를 살펴보며 박물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부 ‘새롭게 관찰해요’ 창작 놀이터 체험



놀이로 문화재를 즐기며 체험으로 역사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신개념 전시공간이 탄생했다. 국립중앙박물관 2005년 개관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개편사업을 통해 선보인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아하! 발견과 공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시는 어린이들이 역사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하! 발견과 공감>은 ‘제1부 새롭게 관찰해요’, ‘제2부 다르게 생각해요’, ‘제3부 마음을 나누어요’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
‘다르게 생각해요’
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하기

제2부 ‘다르게 생각해요’에서는 일상의 변화를 가져온 에너지와 신소재의 역사가 펼쳐진다. 불의 발견과 이용에 대한 전시 ‘자연의 에너지, 불’과 나무막대, 활, 활비비 등을 사용해 불을 만들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역사 장면이 하나씩 펼쳐지는 ‘불 피우기 그림자 극장’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 선사·고대의 식기, 조리 기구를 오늘날의 부엌과 비교해볼 수 있는 공간, 깨어진 도자기를 입체 퍼즐로 맞추면서 협동심을 기르는 체험 코너도 만나볼 수 있다. ‘도구를 만드는 금속’에서는 금속 문화재의 대표 소재인 철, 금, 청동의 재료적 특성을 탐구하고, 각각 어떤 문화재로 탄생했는지 살펴본다. 또 게임으로 구리와 주석의 합금 비율을 살펴보고, 성덕대왕신종, 반가사유상, 청동칼 등 청동으로 만든 문화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빙글빙글 움직이는 바퀴’에서는 동그라미 바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지, 놀이로 문제를 해결하며 과학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2부 ‘다르게 생각해요’ 도자기 체험



제3부
‘마음을 나눴어요’
소통과 공감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제3부 ‘마음을 나눴어요’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문자, 교통 및 통신수단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며 문화를 일궈냈는지 알아본다. 타인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이번 전시의 마지막 주제 영역은 과거의 역사문화를 통해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을 공유하는 체험전시로 조성했다. ‘이모티콘 사진기’는 감정이 바로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어린이의 특성을 살려, 관람 후 현재 심리 상태에 해당하는 감정 이모티콘을 선택해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코너다. ‘생각을 표현하는 글자’에서는 금속활자를 직접 조판해보고,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자, 수어와 점자 등 다양한 소통 방법을 살펴본다. ‘마음을 전달하는 통신’은 옛날의 서찰, 파발, 신호연, 북, 봉수 등에서부터 오늘날의 편지, 휴대전화, 이메일 등 통신수단의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테이블에서는 과거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하면, 다른 것을 선택한 친구와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지 살펴보는 게임이 펼쳐진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박물관 오케스트라’는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신나는 체험전시다. 참여 인원이 늘수록 동서양의 악기가 더해져 음악을 합주한다.

이처럼 <아하! 발견과 공감>은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이 단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 그리고 미래와 이어져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를 상징하듯 전시실 입구에 설치된 5m 길이의 초대형 오토마타 작품은 어린이박물관 전시에 담긴 여러 가지 주제를 하나의 세계로 구성했다. 작품의 메시지처럼 과거와 오늘,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흥미로운 문화재 세계로 어린이들을 초대한다.

3부 ‘마음을 나눴어요’ 체험



어린이박물관 <아하! 발견과 공감> 포스터

◆ 상설전시 <아하! 발견과 공감> 이용 TIP

QR 코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예약
※ 1일 총 5회 차, 회차별 99명 입장 가능

전시장 전경



생생한 연출 완전한 재현

국립중앙박물관 백제실·가야실 전면 개편

글. 고영민, 최은비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백제실 전경



가야실 전경

백제·가야문화의 진면목을 선보이는 국립중앙박물관 백제실·가야실이 12월 3일 새단장을 마치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상설전시관 1층 선사·고대관에 있는 백제실·가야실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전시환경을 개선해오다, 지역 박물관과의 전시 구성 차별화 및 최신 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전면 개편작업을 시행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백제와 가야 역사를 주제별 전시로 짜임새 있게 구성할 뿐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을 쾌적하게 개편함으로써 관람의 편의를 도모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등잔

2배 이상 ↑ 전시품 대폭 확대

백제실·가야실은 최신 연구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기존 354건의 전시품을 725건 2,221점으로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이 중에는 최근 조사한 ‘부여 왕흥사지 치미’와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등잔’이 포함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치미로 알려진 부여 왕흥사지 치미는 결실된 부분을 3D 프린팅 방식을 이용해 완전한 형태를 갖춘 모습으로 선보였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등잔은 무려 7개의 등잔을 엮은 굽다리접시로, 2015년 재발굴 당시 부러진 뚜껑돌 아래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어 이번에 빛을 보게 되었다.

평면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입체적 전시 연출

확대된 전시품과 함께 전시 연출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벽면을 활용한 입체적인 연출을 시도해 관람객이 편안하게 전시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중 ‘공주 수촌리 고분군 일괄 출토품’과 ‘가야 무사의 무기고’를 눈여겨볼 만하다. 4~5세기 무렵 백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공주 수촌리 유적 출토품 100여 점은 무덤 주인공의 위상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연출했다. 또한 가야 무사가 사용했던 갑옷, 칼, 말갖춤 등의 전시품을 선보이는 공간은 당시 보관하던 모습으로 재현해 생동감 있는 관람을 즐길 수 있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전시 공간

늘어난 전시품과 새로운 전시 연출에 맞춰 전반적인 전시 관람 환경이 개선된 점 역시 고무적이다. 진열장의 높이와 너비를 늘리고 저반사 유리*로 교체하여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관람 동선을 개선해 관람의 효율과 즐거움을 배가했다. 조명 역시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도 전시품 관람에 적합한 최신 LED 조명으로 모두 교체했다.

***저반사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두께 1cm 기준)이 98~99%로, 일반 유리나 저철분 유리에 비해 난반사가 적어 전시품의 색감을 원형에 가깝게 감상할 수 있음.

400년 원목 탁자와 어우러진 진정한 휴식

백제실 입구의 휴게공간에도 이야기를 담아냈다. 대형 통원목 탁자와 의자만으로 군더더기 없는 공간을 연출했다. 특히 길이 5.3m의 통원목 탁자는 백제 옛 수도였던 충남 공주시의 어느 마을 입구에서 있던 400년 넘은 느티나무로 제작한 것으로 오랜 세월의 기품과 멋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휴게공간은 창 너머로 펼쳐지는 박물관 정원과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사색과 휴식의 장소로 더할 나위 없다.



휴게공간 전경

국립중앙박물관은 향후에도 전시품의 안전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전시 연출 흐름에 맞춰 상설전시실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신 학계의 연구 성과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시에 반영해 ‘생활 속 열린 박물관’으로서 함께할 예정이다.

비밀의 빛장 연 관람형 수장고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 개관

글. 이경수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공주박물관이 충청권역 수장고를 새롭게 건립했다.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의 급증으로 수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권역별로 저비용 고효율의 수장고 건립이 필요해짐에 따른 것이다. 이에 2013년 국립나주박물관 호남권역 수장고, 2019년 국립경주박물관 영남권역 수장고에 이어 2021년 11월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를 개관했다. 충청권역 수장고는 열린 수장고(Open Storage), 열린 컬렉션(Open Collection)이라는 기치 아래 공간적, 기능적, 내용적으로 열린 건축물을 추구한다. 건축 설계 당시부터 유럽의 개방형 수장고 수준을 능가하는 관람 요소를 다수 도입해 수장고를 국민이 직접 보고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간 효율성과 안전성이 극대화된 이동식 2층형 수장대를 설치하여 향후 충청 지역 및 한강 이남 지역 출토품을 최대 150만 점까지 보관할 예정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관리 시설 확보

#환경조건에 민감하지 않은
#토도류 보관

충청권 국립박물관 소장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충청권역 수장고는 상대적으로 환경조건에 민감하지 않은 토도류를 보관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장고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 5,768㎡ 규모로, 4개의 관람형 수장고, 2개의 일반수장고, 3개의 관람 및 휴게공간(전시공간 누림, 수장공간 모음, 문화공간 나눔), 유물등록실, 촬영실, 포장실, 하역장 등 유물관리를 위한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민에게 열린 관람형 수장고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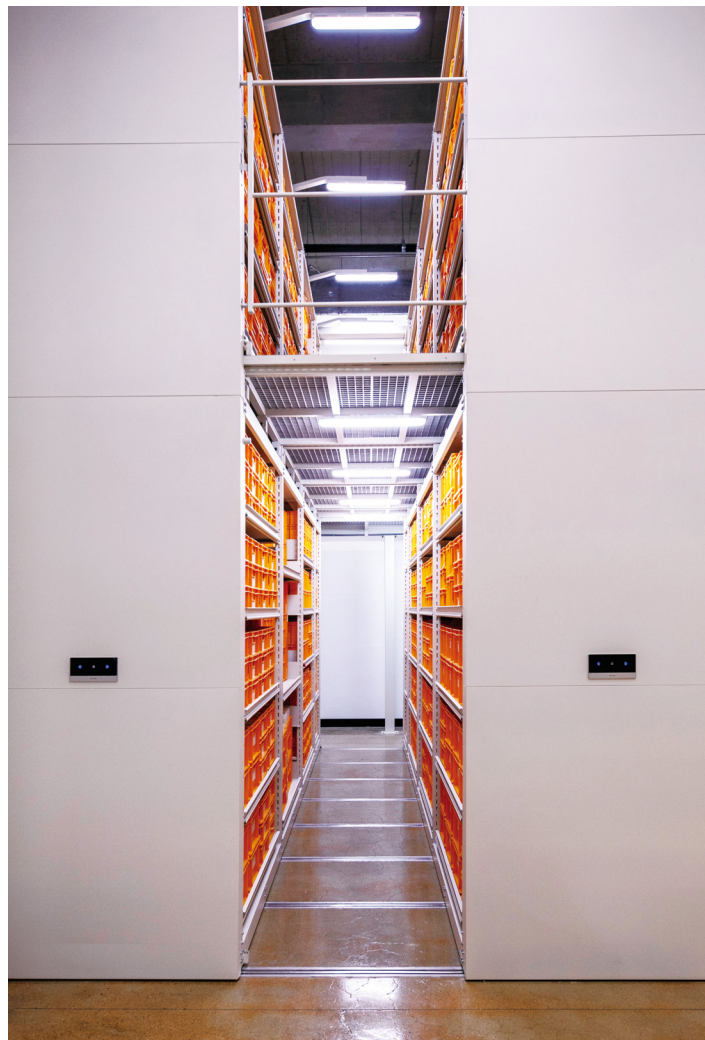
#5,700여 건 41,000여 점 공개
#브리지 통해 거닐며 수장고 내부 관람

충청권역 수장고는 폐쇄적인 수장고 구조를 극복하고 열린 구조로 설계하여 수장영역 대부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6개의 수장고 중 관람형 수장고는 4곳(제5·7·8·10수장고)으로 공개되는 전체 유물 수량은 5,700여 건 41,000여 점이다. 특히 제5·8수장고에서는 국내의 최초로 관람객이 브리지를 통해 수장고 내부로 걸어 들어가서 전체적인 공간감을 느끼며 내부의 수장환경, 수장시스템을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장공간 모음(1층)’에서는 국립공주박물관의 대표 컬렉션인 마한·백제 유물을 중심으로 수장고 재현공간을 선보인다. 메시망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수장고 내부공간과 단절되지 않고 수장고 내부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전시공간 누림(2층)’은 다량 전시 공간으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생활용기의 하나인 ‘도·토기’를 집합적으로 전시했다.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1만 년에 걸친 파노라마적인 변화상을 소개한다. ‘문화공간 나눔’은 휴게의자, 건축모형, 수장고를 상징하는 격납상자, 유물등록과정 소개 키오스크를 배치하여 학습동기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따뜻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제7수장고에서는 전시형 수장대를 마련하여 관람창을 통해 권역별 수장고의 활용 주체인 청주·부여박물관 소장 마한·백제 유물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제10수장고를 통해서도 관람창으로 충청 및 한강 이남 지역의 대표적인 금속유물을 감상할 수 있다.

공간 효율성과 안전성이 극대화된 이동식 2층형 수장대 구축

#고정식보다 4배 높은 효율
#국내 내진설계 기준 부합

충청권역 수장고는 기존의 고정식 수장대가 아닌, 이동식 2층형 수장대 구조를 선보인다.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5m 높이의 일체형 수장대가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중2층 구조물을 만들지 않고도 수장대 자체적으로 중2층부 발판을 제공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동식 2층형 수장대는 고정식 수장대보다 4배 정도 많이 수장할 수 있으며, 최대 150만 점에 이르는 국가문화유산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지진 발생에 따른 국가문화유산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국내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내진 성능도 갖추었다. 이 외에도 전도방지 장치, 격납상자 낙하방지 장치, 대형토기 낙하방지 장치 등을 도입하여 내진 성능을 강화했다.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는 이처럼 공간적,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요소를 두루 갖췄다. 안전성이 보장된 건축요소, 열린 관람형 수장고 구현, 공간 효율성과 안정성이 극대화된 이동식 2층형 수장대 도입 등으로 향후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건립에 있어 모델이 되고 동시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섬 문화 넘실대는 미래의 바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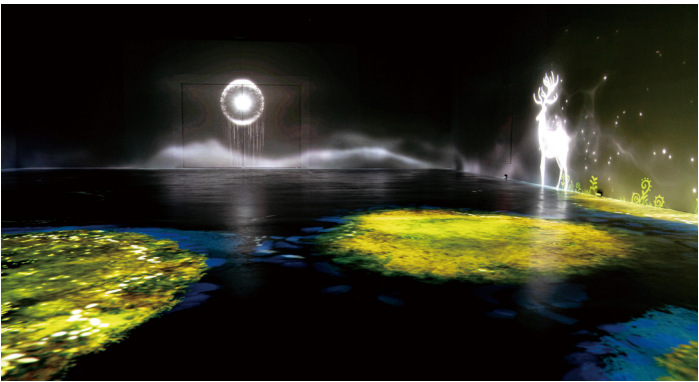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 전시관 개관

글. 서진선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2021년 개관 스무 해를 맞은 국립제주박물관이 2018년 11월 착공한 복합문화 전시관의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말부터 일반 공개를 시작했다. 부족한 기획전시실을 확대하고, 어린이박물관과 물입형 예술영상 체험장을 신규 설치하는 등 복합문화 공간을 확충했다. 증축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4,494.03㎡ 규모의 건축물로 내부에는 기획전시실, 어린이박물관 및 교육실, 실감영상실이 조성되어 있다. 휴게용 대형 로비, 카페, 유아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도 두루 갖춰 편의를 더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 주민 등 관람객이 편하게 찾아와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자, 사랑방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인 <제주와 박물관, 동행>도 함께 개막하는 등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동심으로 만나는 제주의 모든 것!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만나는
어린이박물관 #5개 체험공간

어린이박물관은 제주의 산, 들, 바다를 배경으로 제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공간이다. <만나다>, <오르다>, <뛰놀다>, <향하다>, <나누다> 등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마주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주 각 지역마다 다른 바닷모래를 살펴볼 수 있는 도입부와 제주 해녀들의 생생한 삶과 목소리를 전하는 ‘해녀와 제주의 바다’ 코너는 국립제주박물관만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매력을 뽐낸다. 어린이박물관은 6~10세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며, 사전예약 없이 관람 가능하다.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네 면의 대형화면 가득 채운
감상하는 실감영상실 #환상적인 미디어아트 <표해, 바다 너머의 꿈>

실감영상실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관을 맞아 첫 번째로 제작된 영상은 국립제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한철 『표해록』(1771)의 내용을 현대적인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표해, 바다 너머의 꿈>이다. 벽면과 바닥으로 이어진 네 면의 대형 화면에는 거친 바다가 가득 차오르며 그곳을 표류하는 배와 제주 선비 장한철이 경험한 낯선 세계와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은 환상적인 미디어아트를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제주와 박물관을 ‘잇고 엮는’ #제주 16곳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소장품 처음으로 한자리에

특별전 <제주와 박물관, 동행>은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제주와 박물관을 ‘잇고, 엮는’ 전시다. 박물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소장품’과 ‘사람’에 대해 조명하고 국립제주박물관의 20년을 함께 만들어온 원동력을 되새겨본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미래의 제주를 위해 국립제주박물관과 많은 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들이 함께 엮어가야 할 미래를 제시한다. 16개 제주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엮은 전시로,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는 ‘안중근의사 유묵(보물, 개인소장 기탁품)’을 비롯해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국가민속문화재,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제주를 사랑한 여러 예술가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국립제주박물관은 복합문화 전시관 개관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제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며, 지역과 함께 숨 쉬는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불교미술 너머의 사람을 만나다

조선의 승려 장인

2021.12.7.~2022.3.6.

글. 유수란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그 쓰임새와 의미뿐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사찰 법당에서 마주하는 불상과 불화는 누가 만들었을까? 신앙 활동과 장엄(莊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미술은 수행자이자 예술가였던 승려 장인이 만든 예가 상당수에 이른다.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은 승려 장인의 세계를 조명함으로써 불교미술을 만든 ‘사람’과 그것이 탄생한 ‘공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불교문화에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전시다. 승려 장인은 출가한 승려이자 전문 제작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말한다. 그들은 성스러운 존재를 형상화해 스스로 수행하는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다. 유교가 국가 지배 이념으로 채택된 조선시대에도 승려 장인은 끊임없이 활동했고, 임진왜란(1592~1598)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사찰을 승려 장인이 중심이 되어 재건했다. 이 과정에서 큰 사찰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직능을 갖춘 승려 장인 집단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며 조선의 색채가 뚜렷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⁵¹ 이번 전시는 사찰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물을 만들었던 조선의 승려 장인 가운데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彫刻僧)과 불화를 그린 화승(畵僧)에 집중했다.

1부 - 승려 장인은 누구인가

1부 ‘승려 장인은 누구인가’는 종교미술 제작자로서 일반 장인과 구별되는 승려 장인의 성격을 소개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손’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무, 돌, 비단, 삼베 같은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불상이나 불화 같은 성물(聖物)로 완성되는 여정은 승려 장인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매일의 연습으로 능숙해진 그들의 손은 재능의 단계를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계를 펼쳐냈다. 11년째 하루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경전 수천 매를 새긴 17세기 승려 장인 연희(演熙)의 이야기는 무한한 반복으로 새로운 경지에 다다른 승려 장인의 모습을 대변한다. 천 번 만 번 자신을 수행하며 도달한 이상 세계, 이것이 일반 미술과 다른 조선시대 승려 장인의 예술 세계였다.

2부 - 불상과 불화를 만든 공간


2부 ‘불상과 불화를 만든 공간’에서는 승려 장인의 공방과 작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조각승의 스튜디오’와 ‘화승의 스튜디오’ 연출 공간은 불사(佛事)

현장에 모여든 승려들이 어떻게 예배상을 조성했는지 보여준다.⁵² 형상을 완성한다고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불상과 불화가 일반 미술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제작을 마친 다음 종교적 예배 대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과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불상과 불화를 예배 대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함께 봉안되었던 여러 신성한 물건도 살펴볼 수 있다.

3부 - 그들이 꿈꾼 세계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승려 장인이 각종 시각 매체의 힘을 빌려 만들어낸 아름다운 불교 세계로 가득한 3부 ‘그들이 꿈꾼 세계’다. 이곳에서는 도식화된 기존의 표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거듭한 결과를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목각설법상(木刻說法相)이라는 입체적인 불국토를 만들기도 했고, 무수하게 중첩된 불교 세계관을 하나의 평면에 담아내기도 했다. 그들은 머무는 곳마다 참되고 아름다운 이상 세계를 만들어낸 예술가였다.

4부 - 승려 장인을 기억하며

불교미술은 조선 후기 문화를 떠받치는 하나의 축이었고, 승려 장인은 이 시기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준 숨은 주역이었다. 사찰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모두에게 열린 미술 세계를 펼쳐 보였고, 이상향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었다. 스스로 공동체적 성격을 띠었으며, 결과물 또한 공동체를 지향한 사람들이었다. 오랜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서 멀어졌지만 이들이 만든 예술 세계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조선의 승려 장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시 마지막에서 이름 모를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롯이 수행하며 예술의 지평을 넓힌 승려 장인을 생각해본다.⁵³ 

도 3. 염불서승도
(김홍도, 조선 19세기 초,
간송미술문화재단)



도 1. 용문사 목각아미타어래설법상과 목조아미타어래삼존좌상 (단응端應 등 9명, 조선 1684년, 예천 용문사, 보물)



도 2. 밀그림과 함께 전시된 통도사 팔상도 (밀그림: 조선 18세기 무렵, 국립중앙박물관, 팔상도: 포관抱冠 등 5명, 조선 1775년, 통도사성보박물관, 보물)

다채로운 빛 품은 고귀한 생채기

漆, 아시아를 칠하다

2021.12.21.~2022.3.20.

글: 노남희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특별전 <漆, 아시아를 칠하다>는 특별한 나무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다. 아시아에서만 자라는 이 나무는 바로 ‘옻나무’로, 이번 전시는 옻나무의 수액이자 기능적 목적에서 출발한 ‘옻칠’이라는 도료가 어떻게 아시아의 칠공예 문화로 다채롭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

옻칠을 채취하는 것과 기물에 발라 칠기로서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놓으면 그보다 곱절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기 때문에 옻칠은 가히 ‘시간의 예술’이라 할 만하다. 또한 옻칠은 나무, 가죽, 직물 등 여러 재료에 칠해지며 다양한 형태의 칠기로 거듭났고, 자개나 금은 등의 장식 재료를 만나 화려한 예술로 피어났다. 이번 전시에서는 옻칠의 이러한 시간성, 물성, 예술성을 비롯해 아시아인들이 옻칠이라는 공통의 재료를 이용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시는 프롤로그 공간의 미디어아트에서 시작된다. 칠공예라는 이야기의 시작점인 옻나무를 주제로 옻나무 전체와 세부 이미지, 상처를 냈을 때 고이는 수액과 정제된 옻칠의 이미지를 고루 섞어 흑백 영상으로 연출했다. 칠기 제작에 사용되는 삼베와 비슷한 천을 길게 늘어뜨려 영상을 투영했고, 관람객들은 이 가상의 옻나무 공간을 통과해 본 전시로 들어가게 된다.^{도1}

1부 - 칠기를 만나다

옻칠과 칠기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습득하는 부분이다. 꽃 모양 잔이나 잔받침 등을 통해 칠기가 동시대의 도자기 및 금속기와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음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옻칠이라는 도료와 칠기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옻칠을 사용한 이유와 옻나무 수액을 물건에 바르는 도료로 정제하는 과정, 간단한 목칠기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질문과 답변 형식의 글, 제작 과정을 재현한 복제품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알 수 있다.

2부 - 칠기를 꾸미다

옻칠은 본래 방수와 방충이라는 기능적 목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특유의 광택과 접착력에 주목한 사람들은 이를 이용한 다양한 장식 기법을 만들어냈다.

옻칠을 이용한 초기 장식 기법을 색을 입히는 것, 이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것, 옻칠의 접착력으로 금은판 등 귀한 물질을 무늬대로 오려내 붙이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본래 색이 없는 도료인 옻칠에 산화철이나 진사^{辰砂} 같은 물질을 섞어 검은색과 붉은색 등 여러 색을 내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그림을 그려 꾸미는 것은 매우 초기부터 사용되어 온 기법이다. 한편, 동아시아 7~8세기 무렵에는 옻칠한 기물 위에 무늬대로 오린 금은판을 붙이고 다시 옻칠한 후 갈아내는 평탈^{平脫} 기법이 유행했는데,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 청동거울 중에서도 평탈 기법으로 꾸민 예를 볼 수 있다.^{도2}



도1. 프롤로그 - 옻나무 미디어아트



도2. 꽃과 동물무늬 옻칠 거울
(통일신라, 지름 18.2cm, 국립중앙박물관)



도3. 나전 대모 칠 국화 넝쿨무늬합
(고려 12세기, 높이 3.2cm, 지름 10.0cm, 국립중앙박물관)

3부 - 개성이 드러나다

2부에서 살펴본 기본 장식 기법을 바탕으로 발전한 칠공예를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서 주로 발전한 장식 기법을 비교해 본다. 한국에서는 자개를 가공해 붙인 나전^{螺鈿} 기법이, 중국에서는 옻칠 층을 두껍게 쌓아 조각한 조칠^{彫漆} 기법이, 일본에서는 옻칠로 무늬를 그리고 마르기 전에 금가루를 뿌려 갈아내는 마키에^{蒔繪} 기법이 특히 발전했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는 미얀마·타이·베트남을 중심으로 칠기가 제작되어왔고, 칠 반죽을 붙이거나 색유리를 박아 꾸미는 등의 장식 기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3부의 중심 공간에서는 2020년 일본에서 구입한 ‘나전 대모 칠 국화 넝쿨무늬합’을 처음으로 선보인다.^{도3} 고려시대 나전칠기 제작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합은 현재 전 세계에 단 3점밖에 남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모자합^{母子盒} 중 한 점이다. 합을 전시한 공간 앞에는 이 합을 담은 연출 영상을 먼저 보게 해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했다. 또한 중국 조칠기 부분에서는 중국 상하이박물관에 소장된 다양한 조칠기 34점을 만날 수 있다.^{도4}

4부 - 경계를 넘어서다

칠기는 오래도록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사용 계층적으로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정된 물품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과 계층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특히 대항해시대와 함께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럽 수출용 칠기(남만칠기^{南蠻漆器})는 독특한 모양과 화려한 장식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두 점의 남만칠기를 전시해 유럽인들의 시선을 끈 수출용 칠기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용 계층이 확대되며 무늬와 형태에 변화가 보이는 조선 후기의 나전칠기와 오늘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서 제작·판매되어 전 세계인과 만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미얀마의 칠기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칠공예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관람객들은 이 공간에서 옻칠의 다양한 속성과 현대적 변주를 감상하며 전시의 감상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도5}

기능성에서 출발해 수많은 장식 기법을 거쳐 칠공예라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 거듭난 옻칠은, 옻나무가 자생하는 아시아 전역에서 기능과 예술을 결합한 하나의 문화가 되어 도자기나 금속기 못지않은 풍부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깊어지는 겨울날, 이번 전시를 통해 잘 몰랐던 아시아 칠공예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도4. 중국 조칠기



도5. 현대칠기

맵시 있게 두른 멋과 지혜

한국의 허리띠 - 끈과 띠

2021.11.23.~2022.3.27.

글: 윤서경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허리띠는 늦어도 2,000년 전에 등장해 현재까지 옷과 함께하는 필수 복
식품이다. 긴 시간 동안 옷을 여미고 아래옷을 동여매는 기능은 변함
이 없다. 때로는 멋을 낼 때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시대별로 허리띠
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다양하다. 과거에는 허리띠가 맨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한 허리띠를 종합적으로 소개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허리띠가 우리 복식과 삶에서 지닌 역사적 의미
와 가치를 살피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특히 전시를 위해 문헌 기록
과 실물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왕이 구장복九章服을 입고 옥대玉帶를
맨 모습을 추정해 복원했다.

〈한국의 허리띠 - 끈과 띠〉포스터



허리띠 세부
삼국시대, 경주 천마총



비단벌레 날개장식허리띠
삼국시대, 경주 황남대총

1부 - 왕의 허리띠

왕의 허리띠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기술과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만들었다. 신라 마립간의 금 허리띠는 다양한 물건을 매단 드리개가 돌
보인다. 조선 왕은 후수를 매단 대대를 차고 그 위에 옥대를 매어 위엄을
과시했다. 두 허리띠는 재료와 형태는 다르지만, 당시 최고 권력자가 지
닌 위세를 드러내는 것은 같다.

2부 - 허리띠란 무엇인가?

인류는 뼈로 만든 바늘과 가락바퀴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옷을 만들어 입
었고, 아마 허리띠도 함께 사용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옷옷이 풀어지
지 않고 아래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추, 지퍼, 고무줄 등을 이용하지
만 이것이 등장하기 전에는 허리띠와 허리끈을 이용했다. 역사 속 허리
띠의 종류와 특징, 허리띠를 맨 모습, 문양과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3부 - 허리띠 이야기

허리띠는 맨 사람이 처한 상황과 마음가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창피’는 허리띠를 매지 않아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모습에
서 유래된 말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말은 ‘검소한 생활을 한다.’
또는 ‘새로운 일에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임한다.’라는 뜻이다. 호주머니
가 없어 소지품을 매단 허리띠, 돌잔치에 매는 허리띠, 국상國喪에 매는 허
리띠 등 이야기가 있는 허리띠를 소개한다.

전 김육의 서대
조선시대



광다회
조선시대

〈한국국보전〉유럽 순회 전시 아카이브

두 번째 이야기

글. 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장



도 1. 헤이그시립박물관 〈한국국보전〉 입구 모습 (1961)

인왕제색도와 달항아리. 전시장 입구를 장식한 두 작품. 조선 후기 최고 화가 정선의 대표작이 전시장에 들어서는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그리고 한쪽에 무심하게 놓인 달항아리. 혹시 수년 전 리움(Leeum)에서 본 장면일까. 기억을 더듬어보자... 아니다. 그렇다면 사진의 흑백 톤에서 촬영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까... 그렇다. 60년 전이다. 그리고 ‘Koreaanse Kunst’라는 낯선 언어의 전시 제목... 〈한국국보전〉이 유럽을 순회했을 때다. 두 번째 개최지 네덜란드 헤이그시립박물관(Haags Gemeentemuseum, 현재 Kunstmuseum Den Haag)이다.^{도1,2}

한국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한다고 치자. 관람객 앞에 내놓을 첫 작품은 무엇이 좋을 까. 현지 큐레이터들과 국립박물관 김재원 관장, 최순우 과장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수백 번도 더 했

을 고민의 결과가 바로 이 사진 속에 들어 있다. 그들의 고민은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 사진이 없다면 60년 전의 치열한 고민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잘 보관된 사진 한 장의 위력은 이처럼 크다. 아카이브가 중요한 까닭이다.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해묵은 아카이브 속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1961년 유럽 순회 전시에 달항아리가 이처럼 비중 있게 전시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진이 보여준다. 이에 앞선 미국 순회 전시에는 달항아리가 전시되지 않았다. 또 헤이그 전시에 앞서 진행된 런던 전시 도록에는 달항아리 도판이 실리지 않았다. 달항아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려는 시도가 헤이그 전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누구의 기획이었을까. 유럽 전시가 끝난 뒤 1963년에 열린 〈이조백자항아리 특별전〉을 기획한 최순우 과장의 아이디어였을까. 그렇다면 최 과장은 어떻

게 이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현지 큐레이터들에게, 또 김재원 관장에게 설명했을까. 아무런 문양이 없는 둥근 항아리를 전시실 입구에 두자는 제안에 전시 관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것도 전시장 초입에... 〈인왕제색도〉와 함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다. 이 모든 질문이 헤이그시립박물관 아카이브에 소장된 사진에서 비롯된다. 이 아카이브가 소장한 〈한국국보전〉 관련 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시 모습을 담은 11장의 사진이다. 이 사진들이 돋보이는 것은 유럽 순회전시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진이 적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의 사진은 개별 전시품을 촬영한 것이나 전시장을 찾은 유명인을 조명한 것이어서 그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전시실 전체를 조망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헤이그시립박물관 전시 모습을 담은 사진은 전시실 입구부터 전시 전체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유용하다.

헤이그시립박물관 아카이브에 이관되어 있는

도 2. 헤이그시립박물관 〈한국국보전〉 전시 모습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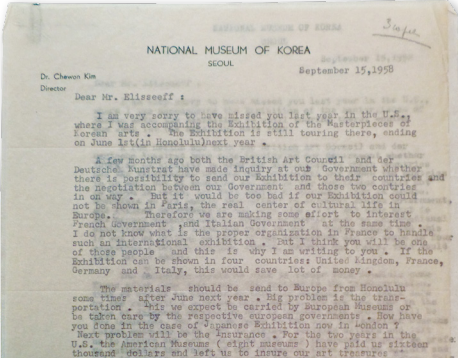


〈한국국보전〉 전시 기록은 유럽 내 참여 박물관들 사이에 오간 실무 협의 서신, 전시장 사진, 신문 스크랩, 도록으로 대별된다. 헤이그의 이 아카이브를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인터넷 서비스다. 헤이그시립박물관 아카이브가 소장한 자료는 모두 전산화되어 어떤 연구자든 요청하면 〈한국국보전〉 파일 전체를 받아볼 수 있다.

〈한국국보전〉의 세 번째 개최지 파리 체르누스키박물관은 가장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련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다. 이 박물관은 파리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사업가 체르누스키(H. Cernuschi, 1821~1896)의 문화재와 저택 기증으로 1898년에 설립된 중국·고고·미술 전문 시립박물관이다. 두툽한 서류 보관 상자 2개 분량의 자료들은 다시 주제별로 분류된 10여 권의 서류 파일 속에 담겨 있다. 이 기록물 속에는 〈한국국보전〉의 준비 과정 대부분이 담겨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재원 관장이 1958년 9월 15일자로 체르누스키박물관의 엘리세프(V. Eliséeff) 관장에게 〈한국국보전〉의 파리 전시를 제안하는 편지^{도3}와 1960년 11월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이 유럽의 참여 희망 국가 대표들을 소집해 연 회의의 제안서와 회의록^{도4}이 그 시작이다.

1960년 11월 파리의 체르누스키박물관에서 열린 이 회의는 김재원 관장의 회고록에 언급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여한 여러 나라 대표의 면면이 드러난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8개 나라의 미술·박물관계 인사, 파리 주재 외교관들과 〈한국국보전〉을 후원한 포르투갈 굴베키안 재단 인사 등이 참여했다. 〈한국국보전〉을 유치하지 않은 덴마크, 이탈리아,

도 3. 1958년 9월 김재원 관장이 엘리세프 관장에게 보낸 편지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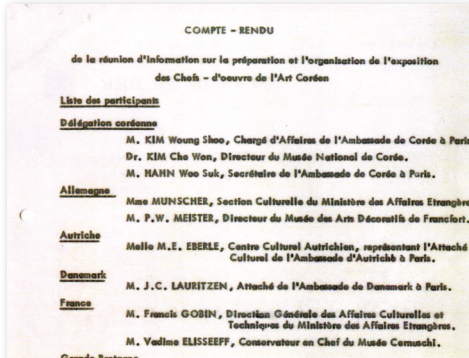
스웨덴의 파리 주재 외교관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원 관장 회고록의 내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⁰¹ 이처럼 탄탄한 아카이브는 기억을 검증하고 엇갈리는 기록을 비교해 실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다.

또한 이 아카이브에는 전시회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세세히 담겨 있다. 작품 진열을 위한 평면 계획^{도5}과 진열 계획을 담은 도면, 도록의 편집안^{도6}과 문안 교정지, 대중교통에 내다 걸 특별전 광고 디자인^{도7}, 개막식 등 행사 초청장과 초청자 명단, 무료 단체 관람 요청서와 허가서, 예산 집행 청구서와 결산 내역서, 작품 운송 계획, 관람객 통계, 전시 개최 박물관들과의 실무 협의 서신, 전시 협약서 초안과 최종본 등등.

이처럼 상세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만 그 방법은 소박하다. 생산된 문건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서류 상자 속에 넣고 오랜 시간 충실히 보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료를 소중히 여기며, 자료의 가치를 알고 찾아온 연구자에게 가능한 만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 열람을 위해 박물관 아카이브를 찾았을 때, 담당자는 당시의 도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면 두툽한 도록 복사물을 제공해주었다. 요청하지도 않은 일이었기에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처럼 박물관 사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을 충실히 수집하고 보관해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서구의 박물관에서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사업에 들이는 정성에 비해 그 기록을 보존하는 일에 대한 관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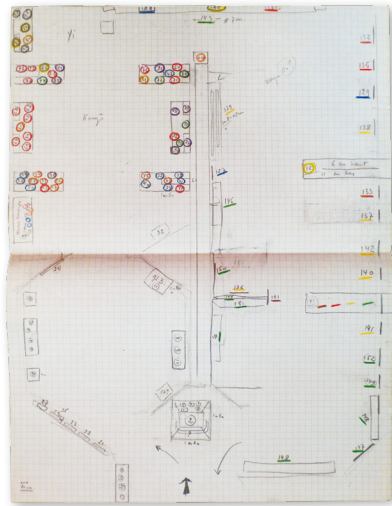
도 4. 1960년 11월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회의 회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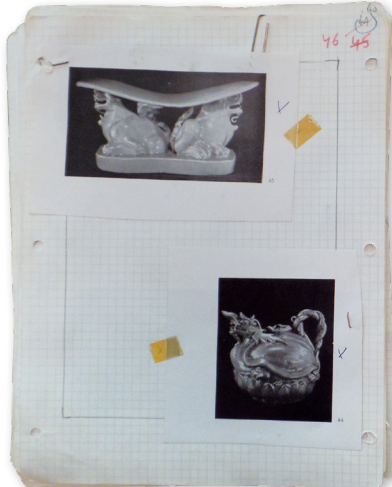
적은 것이다. 기록을 소중히 하는 것은 그저 추억을 정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이 한 일의 의미와 가치를 완성하기 위함일 것이다. 세계의 학자들이 이제 한국의 박물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온갖 역경을 딛고 성장해온 우리나라 박물관의 발자취를 무엇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

01) 김재원, 『경복궁아화』 탐구당, 1991, pp.140~141.
이 회고록에서 김재원 관장은 영국예술위원회 담당자, 덴마크·이탈리아·스웨덴·오스트리아의 파리 주재 외교관들과 굴베키안 재단 담당자의 참석을 언급하지 않았다.

도 5. 파리 체르누스키박물관 〈한국국보전〉 평면 계획



도 6. 파리 체르누스키박물관 〈한국국보전〉 도록 편집안



도 7. 파리 체르누스키박물관 대중교통 광고를 디자인 시안



멈춘 시간 속 고요히 흐르는 사유

〈사유의 방〉과 함께한 시간들

글. 최옥 원오원아키텍스 대표

공간에 담은 —— 반가사유상의 가치

2021년 해가 바뀐 1월의 어느 날,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 전시와 관련하여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을 사랑한 동양미술사학자인 존 카터 코벨(John Carter Covell, 1910~1996)이 남긴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많은 글을 유심히 읽은 터라 한국 문화에서 반가사유상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기에 긴장이 되었다.

사실 반가사유상과는 두 번째 만남이다. 2009년 미국 서부의 최대 미술관인 LACMA의 한국관 재개관 전시 때 한국 유물 100여 점이 전시되었는데 유물 케이스 디자인을 원오원이 했고, 당시에는 아크릴 케이스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반가사유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첫 만남에서 반가사유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국가 유물에 대한 박물관의 깊은 애정을 느꼈다. 전시실에 관한 요구 사항은 명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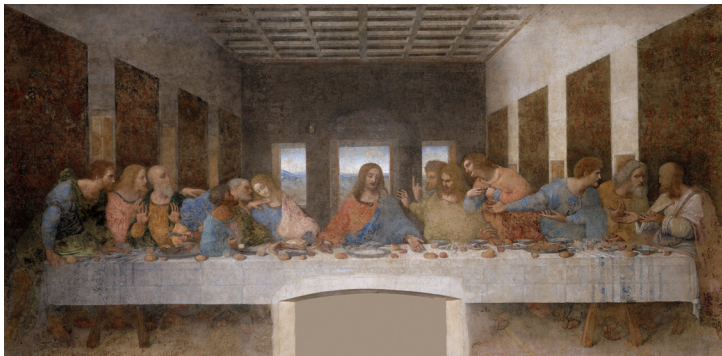


반가사유상만을 위한 전시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함께 전시하고 싶고

뒷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케이스 없이 전시하면 좋겠고, 배경 색깔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레오나르도 다빈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 PUBLIC RELEASE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2제자가 테이블에 나란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면성이 강조된 일소점 투시의 전형적인 15세기 르네상스의 회화다. 두 반가사유상을 배치해야 하는 반가사유상 전시실은 공간에 전형적인 소점이 생기지 않고 움직임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사유의 방 —— 세 가지 시점

사유의 방에는 세 가지 다른 시점이 있다. 하나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시점이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관람객의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울어진 벽에서 인지되는 천상에 계신 보살의 시점에서 사유의 방 전체를 바라보는 시점이다.

두 반가사유상은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 때문에 반가사유상과 관람객의 관계는 시선이 동시에 마주치지 않기에 공간은 경직되지 않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길이 24m의 공간은 두 반가사유상의 섬세한 미소를 인지할 수 있고, 둘러싼 벽체와 재료의 섬세한 조율을 통해 비밀상적 공간감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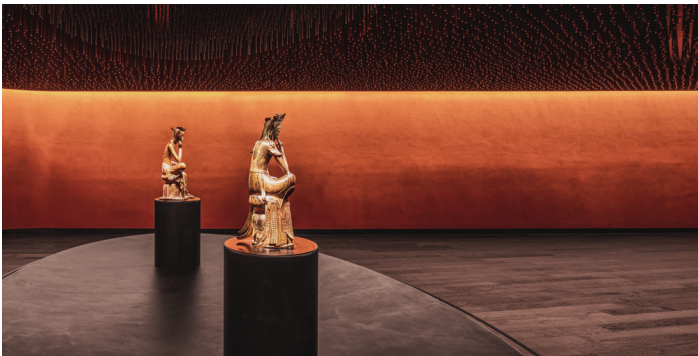
‘사유의 방’ 벽체와 바닥, 천장은 장식적 일소점 투시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해 눈 이외 다른 감각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비시각적 체계의 공간이다. 빛을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벽은 물러나고 두 반가사유상만 빛과 반응해 표정을 드러낸다. 흙, 숯, 옷 등의 재료로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해 분위기를 깊게 만들고 두 반가사유상의 표정만 드러나게 만들었다. 들어가는 복도와 나오는 복도는 사람의 눈이 어두움과 밝음에 적응하는 시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일종의 전이 공간으로 비움을 위한 준비 공간이기도 하다.

나는 반가사유상의 미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표정이라고 생각했기에 현재의 관람객과 어떻게 만날지가 중요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를 계획한 공간이다.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고, 우리 문화유산의 배경이 되어 그 가치가 빛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으로 믿었다.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박물관 관계자 및 시공에 참여한 많은 분의 노고와 현장에서 살다시피 한 원오원 식구들의 노력에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한다. ■



글을 쓴 최옥은 건축사무소 원오원아키텍스의 대표이자, 이탈리아 건축 디자인 매거진 『도무스』 한글판 발행인이다. 홍익대학교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건축대학교에서 건축 설계 및 이론을 공부했으며, 미국 맥도웰 콜로니와 스페인 발파라이소 파운데이션에서 펠로우십을 받았다. 대표작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학교재 갤러리,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가파도 프로젝트, 삼일빌딩 리노베이션,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등이 있다.



한·중·일에 분산된 ‘679년도 당나라 국가 재정 집행 문서’가 하나로 복원되다

투루판 출토 시신갈개 부착 문서

「당 의봉3년 탁지주초·의봉4년 금부지부唐儀鳳三年度支奏抄·儀鳳四年金部旨符」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투루판 출토 시신갈개를 감싸고 있던 문서 조각을 분리하자 1300년 전에 쓴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질고 선명한 목서가 드러났다. 당 고종시기 국가 재정의 집행 지침인 이것은 현재 중국과 일본에 소장된 문서 조각과

하나의 두루마리 문서를 구성했던 것인데, 이번에 새롭게 발견해 복원해낸 조목들은 당나라 최전성기인 679년 재정 운용의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글. 권영우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시신갈개(문서 분리 전)
투루판 아스타나 230호
무덤
당 703년 매장
복원 추정 크기
16.0×78.0cm



삼국으로 흩어진 시신갈개 문서 조각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토품 중에는 특이한 모습의 유물(본관3978)이 있다. 종이 문서로 감싼 이 두 조각의 뒷자리는 1912년 일본 오타니탐험대(大谷探險隊)가 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루판(吐魯番) 지역의 아스타나(阿斯塔那) 230호 무덤에서 수습한 것으로, 죽은 이의 시신을 눕히기 위한 ‘시신갈개(尸裹)’로 추정된다. 지금은 다소 낡은 개념인 시신갈개는 6-8세기의 투루판 지역에서는 관곽과 더불어 보편적인 장의 용구로 사용되었다.

기구한 운명이었던 것일까? 이 시신갈개에 붙은 문서 조각과 같은 문서의 일부는 현재 일본 류코쿠대학(龍谷大學)과 중국 신장박물관(新疆博物館)에도 소장되어 있다. 한·중·일에 흩어진 문서 조각은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 문서에서 잘려 나와 시신갈개에 붙어 있던 것이다. 시신갈개와 문서 조각은 20세기 초 오타니탐험대가 일본으로 반출한 뒤 머지않아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분산되었다.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무덤에 남겨진 문서 조각은 1972년 중국 측에 의해 발견되었다.

문서 조각의 정체

중국과 일본에 소장된 문서 조각은 일찍이 1950년대부터 연구되었다. 학자들은 이 조각들의 정체가 ‘당 중앙기구인 상서성(尙書省)에서 하달한 679년도 전국의 예산 집행 문서(唐儀鳳三年度支奏抄·儀鳳四年金部旨符)’에 해당하며, 당이 투루판을 점령하고 세운 서주도독부(西州都督府)에서 소속 현에 배포하기 위해 작성한 사본(寫本)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냈다. 문서에는 당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용·조(庸·調)라고 하는 국가의 세수(稅收)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 있다. 그 대다수의 지침들은 그때까지 다른 사료에서는 볼 수 없던 내용이었기에 학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문서 조각은 이른바 ‘투루판 출토 문서’가 변방 역사의 한 단면을 비추는 문자 자료라는 그간의 인식을 불식시켰으며, 당 전기(前期) 국가재정사의 사료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출토 문서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1995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시신갈개 부착 문서도 바로 중·일 측 문서 조각과 같은 문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문서 조각

들은 글씨가 적힌 면이 안쪽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시신갈개의 배접 문서가 삼국에 분산된 문서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문서의 분리 조사를 진행했다.

문서 조각의 접속과 내용 복원

분리된 문서 조각은 두 종류였다. 같은 크기의 예산 집행문서 2장 외에도 「고창현 소속 도주 병사의 처분에 관한 문서」 2장이 새롭게 드러났다.⁰¹ 나아가 이들 문서 조각은 무덤에 남아 있다가 수습된 중국 측 문서 조각과 정확히 접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국 측 문서 조각은 본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시신갈개에 붙어 있던 것이고, 일본 측 문서 조각은 현존하지 않는 또 다른 시신갈개에 붙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중 소장 문서 조각의 접합 결과 총 39개의 현존 조목 가운데 10개를 새롭게 복원함과 동시에 불완전했던 기존 해석을 보완할 수 있었다. 드러난 문서에는 당 전국 각지에서 거둔 조세의 배분·보관 및 운송, 호랑이 등 맹수를 죽인 자에 대한 포상 재원, 외국 사신의 접대비용 등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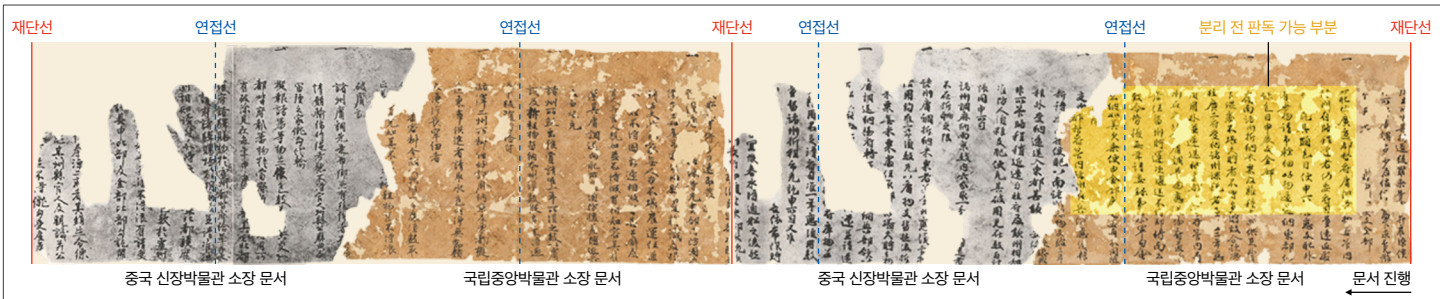
영남도⁰² 소속 주에서 거둔 곡물을 보관할 때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는 낫고 축축한 곳에 많이 저장했다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당 각지에서 거둔 조세의 배분·보관 및 운송 -

모든 주는 호랑이나 이리를 죽였을 때의 포상으로 1년치 소요액만큼을 (거둬들인) 용·조⁰³와 절조물⁰⁴에서 덜어내 주에 남겨두도록 한다. 성과를 헤아려 그만큼을 주되 50단을 넘을 수 없으며 그때그때 지급한다.
- 맹수를 죽인 자에 대한 포상 재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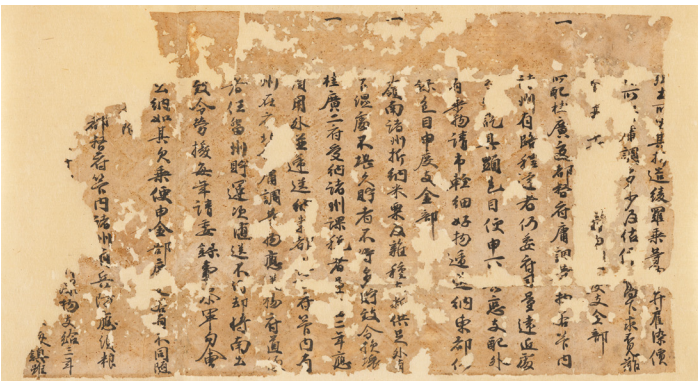
외국 사신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여정에 위치한 주가 필요한 양만큼 정창⁰⁵과 의창⁰⁶에서 내어 사용한다. 만일 부족하면 절조물로 충당하되 용이나 조에서 함부로 덜어내 쓸 수는 없다.

- 외국 사신의 접대비용 -



한·중 소장 문서 조각의 접속

사실 이 문서는 관청에서 폐기한 공문서를 장의 용구의 일부로 재활용한 것이어서 무덤 주인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이 시신갈개가 출토된 무덤 주인인 장예신(張禮臣)(?-702)은 이전 왕조인 국씨(國氏)고창국(高昌國) 최고 호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인지 당이 이곳을 통치했던 생전에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가 사후 영겁의 세월 동안 안식을 취할 자리에는 당 중앙정부의 관문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당 의봉3년 탁지주초·의봉4년 금부지부」(2020NMK1:1) (당 679년, 28.5×52.4cm)



중앙아시아실 전시 모습 <투루판 지역의 한문자료·실크로드 경계의 삶>

- 01) 「당 상원연간 서주참조사 안권 위 고창현 신송 도주위사 용설가전사唐上元年間西州倉曹司案卷爲高昌縣申送逃走衛士庸繹(價錢事)」로 명명한 이 문서의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했다.
- 02) 영남도(嶺南道: 현 광둥성)을 중심으로 푸젠성, 광시성 대부분, 윈난성 남부 등
- 03) 용(役: 매년 20일 노역) 대신 납부, 성인 남성 1인당 비단 3척
- 04) 절조물折租物: 조租로서 곡식 대신 납부 또는 제작한 다른 물품
- 05) 정창正倉: 거둬들인 조租를 보관하는 창고
- 06) 의창義倉: 토지세(경작지 1무畝 당 조2식)를 보관하는 창고

어른이 된 소년에게 전하는 박물관의 인사

KBS 역사스페셜 <박물관은 살아있다>를 제작하며

글. 김민희 KBS PD

축적된 시간 속 경험의 변화

박물관에 관한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국립광주박물관이다. 초등학교 때 소풍으로 떠난 그날의 박물관은, 그러나 내게 그다지 인상 깊은 곳이 아니었던 것 같다. 선사인들이 음식을 담아 보관했다던 흙으로 만든 그릇보다는 어머니의 김밥이 담긴 플라스틱 도시락 통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을까.

물론 박물관의 잘못도, 그렇다고 어린아이의 잘못도 아니었을 것이다. 박물관은 박물관의 역할에 충실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본능에 충실했을 거다. 그래서 그날 박물관의 풍경은 흐릿하고 대신 박물관으로 향하던 버스에서의 떨림, 친구들마다 다른 모양의 김밥, 파란 잔디밭 위에서의 점심 식사, 행렬의 시작과 끝을 지키던 선생님들의 목소리만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2021년, 나는 KBS 다큐멘터리 <UHD 역사스페셜-박물관은 살아있다>를 제작하면서 다시 박물관을 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작해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그리고 국립광주박물관까지, 놀라웠다. 박물관이 이토록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공간이었다는 사실이.

그동안 박물관이 많이 변한 걸까? 물론 소풍날의 박물관에는 검은사로 들어가는 VR 체험관도,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설명해주는 안내 로봇 큐아이드, 정조대왕의 행차를 웅장하게 보여주는 디지털 실감 영상관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먹도끼는,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려청자는, 달항아리는, 책가도는 있었으니까 박물관은 변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한 걸까?

국립광주박물관 잔디밭에서 김밥을 먹던 초등학교생이 N년 차의 직장인이 되기까지, 그 시간에는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경험들이 쌓였다. 그날 함께 소풍을 떠났던 친구들 역시 저마다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함께 쌓인 개인적인 경험들이 인류의 축적된 보편적인 경험과 만나 감응하는 것이 내가 박물관에서 찾은 변화다.



수천수만 가지 이야기 발굴의 보고寶庫

<UHD 역사스페셜-박물관은 살아있다>를 제작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프로그램의 제목이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혹은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 선택해야 하는 제법 진지한 고민이었다. 그리고 내가 <박물관‘은’ 살아있다>로 결정한 것은 <박물관‘은’ 살아있다>가 <박물관‘이’ 살아있다>보다 조금 더 수용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제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의지, 경험, 물음만큼 대응해서 살아난다고 할까. 물론 주변에서는 유명한 영화 제목을 따라 하지 않으려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말이다.

취재를 위해 박물관을 찾을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박물관의 유물마다 걸려 있는 안내문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닐까?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물을 선택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이름과 소재, 연대와 국적 표기만으로 유물을 알기에 충분한 걸까? 박물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디까지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은 더 알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까? 사람들은 박물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

그래서 나는 <UHD 역사스페셜-박물관은 살아있다>를 통해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사이의 공간을 넓혀주고 싶었다. “박물관의 시작은 왜 주먹도끼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40여 년 전한 주한미군 병사의 우연하고도 위대한 발견에서 찾았고, 뒷면밖에 볼 수 없던 청동거울의 앞면에서 청동기인들의 신성한 기도를 들었다. 아름다운 고려청자에 숨은 이름 모를 뱀사람들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굴곡진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달항아리의 이야기를 함께 비교하며 듣기도 했다. 그렇게 박물관에 놓인 작은 안내문의 한계를 넘어, 감히 공급자의 고민과 수용자의 적극성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물론 그 작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박물관은 살아있다>를 보고 박물관에서 안내문에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





고귀한 아름다움 빛나는 가치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런던 남쪽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박물관이 밀집해 있다. 대영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이다. 그중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장식예술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이 대규모 한류 기획전을 예고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의 첫 한류 전도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에서 한국 문화재의 멋과 기품이 현대적으로 재탄생한다.

정리. 편집팀 | 자료.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 | 사진. 해외문화홍보원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 엿보기

세계 최대 공예 미술관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 이하 V&A)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장식예술 박물관이다. 1851년 런던 세계 박람회 성공에 힘입어 1852년 설립된 이래, 장식 미술, 공예, 디자인 분야 소장품 규모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설립 당시 주춧돌을 놓은 빅토리아 여왕과 그의 남편인 앨버트 공의 이름을 따 지은 이름이다.

V&A 초대 관장인 헨리 콜(Henry Cole)은 박물관이란 공간이 휴식과 고품격 문화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기능하도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내부를 꾸몄다. 박물관 건축물은 르네상스식, 로마네스크 양식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고풍스럽고 웅장하다.

V&A는 세계 전 지역에서 온 장신구, 도자기, 가구, 금속류, 그림, 사진, 직물 등 450만 개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4000년에 이르는 유리세공 역사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상적인 장식 미술품을 보여준다.

한편, 140개가 넘는 갤러리 가운데 복제 조각실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유럽의 유명한 기념비와 조각 복제품을 수집해놓은 이곳에는 로마의 승전 기념비 트라야누스 기념주(Trajan's Column)의 복제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석고로 만든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과거 영국의 서재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 직물과 의복을 직접 입어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영국 최초로 자리한 한국실

현재 영국에서 한국실이 들어선 곳은 대영박물관과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그리고 V&A 세 곳이다. 그중 한국실 큐레이터가 상주하는 곳은 대영박물관과 V&A 두 곳이다.

V&A 한국실은 1992년 삼성의 후원으로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다. 1888년 한국 유물을 첫 소장한 이래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수, 칠기, 은제품, 패션, 디지털 아트 등 500점이 넘는 한국 문화재 및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2012년에는 로잘리 김(Rosalie Kim)이 한국실 큐레이터로 선발돼 한국 컬렉션을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한국실은 6개월 주기로 컬렉션이 교체되며 시기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보인다. 특히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공예예술의 정수를 이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관람객들을 위한 이벤트로 만져볼 수 있는 청자 작품을 배치해놓은 것도 차별화된 행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설명판도 마련해 동등한 문화향유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한편,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류(Hallyu! The Korean Wave)’를 주제로 하는 대규모 기획전이 예정되어 있다. 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류가 오늘날 어떻게 세계적 현상이 됐는지 소개할 계획이다. 전통 한복을 포함해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케이팝 스타가 무대의상으로 입었던 한복도 전시할 예정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2021년 9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한복(hanbok)’이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V&A와 한국의 긴밀한 문화 소통은 두 나라의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키우는 단단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 kocis.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 한국실



© kocis.



© kocis.

대영박물관 한국실

국립박물관 e뉴스

조선 왕실 발원으로 조성한 귀중한 불상 국보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특별공개

국립중앙박물관이 현재 전시 중인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에서 국보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2021년 12월 25일(토)부터 2022년 1월 22일(토)까지 4주간 특별공개한다. 국보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전기인 1458년(세조 4)에 왕실이 발원하여 만든 불상의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 왕실 발원 불교미술 제작자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갔는지 그 흐름을 잘 보여준다. 조성 당시에는 정암산#藏山 법천사法泉寺에 삼존불로 모셔졌다고 기록되었고, 현재는 경상북도 영주 흑석사 법당에 봉안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2016년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에 불상이 공개된 이후 두 번째 서울 나들이로, 특별공개는 4주 동안 진행된다. 연말연시 특별한 선물처럼 찾아온 국보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더불어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정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



중원문화권 특징 구현하는 문화기관 설립 시동 국립충주박물관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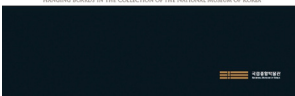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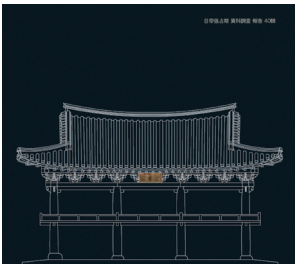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은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와 함께 국립충주박물관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온아 건축사사무소의 ‘중원차경: 풍경을 거닐다’를 선정했다. 기존 수목을 포함한 조경 환경에 건축물이 스며들 수 있게 설계하고 내부 공간은 근경, 중경, 차경을 활용해 다양한 경관이 펼쳐질 수 있도록 차별성을 뒀 내·외부의 완결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새롭게 건립되는 국립충주박물관은 중원문화권의 역사성과 특징을 구현하는 박물관으로서, 중부 내륙지방의 대표 문화기관을 목표로 충북 충주시 탄금대 인근 세계무술공원에 들어설 계획이다. 모든 수상작은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www.chungju-museum.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건물에 내건 뜻, 현판을 만든 까닭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현판』 보고서 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강점기 자료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이래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현판懸板을 조사한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현판』을 11월 30일 발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조선 궁궐과 관청 건물이 훼손되면서 철거된 현판 82건 82점을 포함해, 조선 후기~광복 이후까지 만들어진 현판 104건 110점을 전수조사한 뒤 현판의 앞 뒤 고화질 사진을 촬영하고 내용을 모두 번역했다. 보고서에는 현판들의 사진,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내외 연구자들이 쓴 논문 6편이 같이 실렸다. 현판은 전통 건축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글씨와 내용 안에 건물을 사용하는 이의 의지와 철학을 담은 종합예술품이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회로 앞으로 많은 국민이 현판을 비롯한 우리 문화재와 역사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소장품 총망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종합도록 개정판 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과 상설전시관을 소개하는 종합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가 발간됐다. 이번 도록은 2016년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종합도록의 개정판으로 지난 5년간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 개편 성과를 반영했다. 상설전시관의 주제별 또는 실별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수록하였으며,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전시한 ‘사유의 방’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는 ‘세계문화’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밖에 국립박물관의 발자취를 함께 수록해 시대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해온 국립박물관의 역사와 현재, 미래의 역할에 대해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도록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점 및 온라인 뮤지엄숍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시의 여운을 간직해보세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 기념 상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2021.12.7~2022.3.6.) 기념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전시 기념상품은 크게 ‘일상에서 유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나만의 시간·공간에서의 힐링’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 스크래치 엽서와 나무 스크래치 펜이 세트 로 구성된 ‘스크래치 엽서’는 <지장보살도 초본>과 <통도사 팔살도 초본> 2종으로 준비돼 있다. 스크래치 펜으로 회색 밑그림을 따라 엽서를 긁으면 코팅된 부분이 벗겨지면서 알록달록한 컬러가 나타난다. ‘인센스 스틱’은 통도사성보박물관의 <목조소통>을 현대적 디자인의 일러스트로 재구성해 패키지에 담았다. 약 40분의 연소시간인 스틱이 50여 개 들어 있다. 도금 재질의 ‘책갈피 세트’는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불좌상’ 6점의 표정과 동작을 활용해 디자인했다. 그 밖에 다양한 품목으로 선보여지는 <조선의 승려 장인> 전시 기념상품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상품관 또는 온라인 뮤지엄숍(www.museumshop.or.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뮤지엄숍
바로가기



겨울방학, 박물관으로 가족 나들이 오세요. 가족뮤지컬 <장화 신은 고양이 비긴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오는 1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옹’에서 가족뮤지컬 <장화 신은 고양이 비긴즈>를 선보인다. 19명의 출연진이 객석을 넘나들며, 랩하고 춤추는 고양이가가 되어 선보이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클래식, 록, 팝 등 다양한 장르의 넘버와 어우러져 기존의 ‘장화 신은 고양이’ 공연들과는 또 다른 매력의 무대를 선보인다. 모험을 통해 역경을 헤쳐나가는 자립심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은 이번 작품은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선사하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공연명 : 가족뮤지컬 <장화 신은 고양이 비긴즈> | **공연기간** : 2022년 1월 8일(토)~ 2월 27일(일) | **공연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옹’ | **러닝타임** : 70분

관람연령 : 만 36개월 이상 | **주최/제작** : 국립박물관문화재단·HJ키즈 | **예매** :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 **문의** : 극장 ‘옹’ (1544-5955) / HJ컬처 (02-588-7708)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동정

〈**승진임용**〉: (행정사무관 신나라)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12.20.자) | 〈**시보임용**〉: (시설서기보 신재문) 춘천박물관 기획운영과(12.1.자), (행정서기보 김진혁) 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12.20.자) | 〈**과장급 임용**〉: (학예연구관 최장열) 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이정근) 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김해박물관장(22.1.1.자) | 〈**승진임용**〉: (행정사무관 신나라)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12.20.자), (학예연구관 이영범)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22.1.1.자), (학예연구관 강상혜)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22.1.1.자) | 〈**시보임용**〉: (시설서기보 신재문) 춘천박물관 기획운영과(12.1.자), (행정서기보 김진혁) 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12.20.자), (행정서기보 박현준) 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22.1.1.자) | 〈**근속승진**〉: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박숙경) 행정서기→행정주사보(‘21.12.29.자) | 〈**전보**〉: (학예연구관 오세연) 김해박물관장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장, (학예연구사 김진경) 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학예연구사 이동관)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이경수) 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이상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과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김영희)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서유리) 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이정인)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오세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이원진) 대구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최기은)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박승원) 대구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정민영)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학예연구사 조효식) 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 →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학예연구사 광홍인) 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학예연구사 김희정)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권혜은) 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 →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이효선)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 대구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신민철) 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 → 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황보창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 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권윤미) 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 → 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김동원)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 청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강민경)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 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박성혜)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 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김현정)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 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오연숙) 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이진우) 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임혜경) 청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박경도)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연구관 류정환)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학예연구관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관 윤태영) 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학예연구관 신영호)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장 → 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관 황은순)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 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관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 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천추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 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진정환) 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방호서기 김윤하) 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22.1.1.자) | 〈**전임**〉: (행정사무관 김민지)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21.12.29.자), (학예연구관 최성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사 유경하)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학예연구관 김현정)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관 박수희) 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행정사무관 김호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22.1.1.자) | 〈**전출**〉: (행정서기 김선정)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21.12.27.자, (행정사무관 한상철)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행정사무관 임복택)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독지도과, (학예연구관 손영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 문화재청, (학예연구관 안경숙) 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장성욱)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학예연구사 이은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학예연구사 김창일) 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22.1.1.자) | 〈**공로연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관 최진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방호주사보 김순태, 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사무운영주사보 이상호,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학예연구관 김종오,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관 박해훈, 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관 배영일, 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방호주사보 서용덕(‘22.1.1.자)



1
January

※ 전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속박물관	전시명	일정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 <조선의 승려 장인>	2021.12.6.~2022.3.15.	기획전시실
	특별전 <漆, 아시아를 칠하다>	2021.12.20.~2022.3.20.	특별전시실
	사유의 방	2021.11.12.~	상설전시관 2층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2019.12.16.~2022.3.1.	상설전시관 3층
	<투루판 지역의 한문자료-실크로드 경계의 삶>	2021.6.14.~2022.6.30.	상설전시관 3층
국립경주박물관	제37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대회 우수 작품전	2021.10.27.~2022.3.27.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
	특별전 <고대 한국의 외래계 문물 - 다름이 만든 다양성>	2021.11.24.~2022.3.20.	특별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제33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	2021.11.27.~2022.3.1.	다목적실
	특별전 <고려음高麗飮-청자에 담긴 차와 술문화>	2021.12.13.~2022.3.20.	기획전시실
국립전주박물관	미술공예실 개편 전시	2022.1.3.~	상설전시관 2층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허리띠 -끈과 띠>	2021.11.23.~2022.3.27.	기획전시실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백제인, 돌을 다스리다>	2021.12.21.~2022.5.8.	기획전시실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무령왕릉 발굴 50년-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	2021.9.14.~2022.3.6.	기획전시실
	충청권역 수장고 개관전시	2021.11.30.~	충청권역 수장고
국립진주박물관	테마전 <애국계몽의 두 갈림길 - 안중근과 강상호>	2021.8.10.~2022.2.20.	임진왜란실 2층
	특별전 <화력조선>	2021.9.17.~2022.3.6.	기획전시실
국립청주박물관	숨과 심이 있는 박물관, 상설전시실 재개관	2022.1.27.~	상설전시실
	국립청주박물관 금속문화재 21선 - 녹이다. 두드리다. 다듬다.	2021.10.8.~2022.1.2.	특별전시실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가야인 바다에 살다>	2021.11.30.~2022.3.6.	기획전시실
	테마전 <웹툰으로 그린 가야 이야기>	2021.3.16.~	상설전시실 1층 중앙홀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제주와 박물관-동행>	2021.11.26.~2022.2.6.	기획전시실
국립춘천박물관	브랜드실 <창령사 터 오백나한-나에게로 가는 길>	2019.12.27.~	브랜드실
	실감영상카페 <지금 여기, 휴(休) - 한국인의 이상향>	2020.12.~	본관 실감영상카페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 <금은보다 귀한 옥>	2021.9.30.~2022.2.6.	기획전시실
국립익산박물관	특별전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	2021.10.19.~2022.2.13.	기획전시실

국립박물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과 참여를 원하는 분은 국립중앙박물관 SNS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blog



f



▶



o



t



audioclip

두더지의 辯

용맹한 호랑이의 추진력으로

권영필(前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前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

『박물관신문』 1974년 1월(통권 30호)

금년은 호랑이 해라고 한다. 원래 호랑이란 놈은 용맹스럽고 날래기도 하려니와 언제나 앞으로만 향해서 달려드는 그 우직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공포와 찬사를 함께 지니게 된다. 그의 특유한 돌진성突進性과 앞을 내다보는 안광眼光이 아마도 그를 백수百獸의 왕으로 군림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앞으로 보는 눈, 시공時空을 초월한 천리안千里眼, 소위 비전이 있는 미래未來 상등相等과 같은 그의 성질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를 영물화靈物化하고 상징화象徵化하여 소치所致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부회附會런가.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바라봄(내다봄)을 표현할 때 회자膾炙되는 구절이다.

오 거센 서풍西風, 너 가을의 숨결이여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存在로부터 죽은 앞서자들은

마치 마법사에게서 도망치는 유령처럼 쫓겨 다니누나.

(중략)

예언豫言의 나팔이 되어라! 오 <바람>이여,

겨울이 오면 봄이 멀 수 있으랴?

영국의 낭만파 시인詩人 퍼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는 가을의 서풍西風을 노래하면서 벌써 봄을 예찬禮讚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마음은 인간人間에게 공통적인가 보다. 한겨울에 접어들면서 굳이 ‘임춘立春, 우수雨水...’ 하는 여유와 바람은 다 무엇인가.

어느 해를 막론하고 납월臘月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일을 반성해보는 달이라고 한다면, 정월은 대개 앞으로 다가올 일 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그 실천의 첫발을 내딛는 달이다. 말하자면 연말은 뒤를 돌아다봐야 하는 시기이고 연초는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금년은 호랑이와 같은 영험靈驗으로 사리事理의 전개展開를 내다보고, 그 용맹스런 추진력으로 실천의 채찍을 가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겠다.

금년에도 몇 차례의 특별전시를 계획하고 그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서두르고 있다. 그야말로 봄은 멀지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봄의 대제전에 여러분을 초대할 것이다. 금년에도 예나 다름없는 아낌과 후원을 바라며 두더지가 새해인사를 전한다.



‘두더지의 辯’은 1970년 『박물관신문』 창간과 함께 수록된
박물관 사람들의 현장 에세이입니다.
본 원고에서는 원문을 현대 표기법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용맹한 호랑이 猛虎圖
조선 18세기, 96.0x55.1cm
M번 6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